



# OFC 2002 전시회 참관기

정종득 / 한국광산업진흥회 기획홍보팀장

21세기 최첨단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이자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계획인 Photonics

2010 Project( 광산업육성 및집적화계획)에 의거 지난 2000년 5월 한국광산업

진흥회가 발족된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광산업관련 전문전시회인 CLEO, OFC, Photonics West, Interopto, FOE, LASER, Opto Taiwan, ILOPE등을 참관하면서 광산업의 국제적인 시장동향과 기술동향은 물론 전시회기법 등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광산업 관련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각종 정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진흥회에서는 지난해 9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우리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산업전문전시회인 2001국제광산업 전시회 및 국제광자기술학술대회(Photonics Korea & IPTC 2001)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금년도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02국제광산업전시회 및 국제광자기술학술대회(Photonics Korea & IPTC 2002)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오고 있다.



▲ OFC 2002가 개최된 미국 캘리포니아 전시장

세계적으로 다수의 광산업 관련 전문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우리 국내 광산업 관련 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중사하고 있는 산, 학, 연 관계자들에게 있어서 OFC 전시회에 대한 의미는 남다른 것 같다.

물론 광산업에 대한 연륜이 일천한 우리 국내업체에서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OFC전시회에 자사 제품을 전시 출품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컨퍼런스에 논문을 제출하여 채택되고 발표자로 참가한 사실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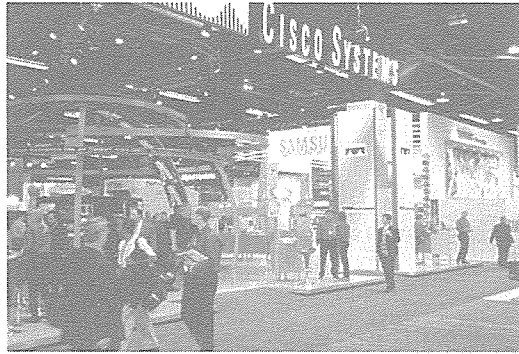
지난해의 경우 OFC 2001 전시회에 우리국내에서는 31개업체가참가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59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이는 우리 국내 광산업의 발전현황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며, 아울러 우리 진흥회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국내 광산업을 육성해온 결실로 생각하며 향후 세계각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광산업관련 전문전시회에 한국업체가 주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

우리 진흥회에서 금번 OFC 2002전시회에 참가한 업체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 진흥회 흥

보부스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자사의 전시부스를 구성하여 참가한 59개업체외에 공식참가업체와 공동으로 부스를 활용하고 제품을 전시한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약 80여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FC 전시회를 주최하는 OS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별 전시회 참관객 분포도를 살펴보면 금년도의 경우 전시회 개최 국가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한국, 영국, 대만순으로 집계되었으며 OFC2002 전시회 개최를 앞둔 금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시회 행사가 열리는 미국 LA로 출국하는 국내 광산업관련 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관계자들로 인해 항공기 좌석이 매진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대단한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국내의 모 과학분야 전문일간지에서는 2003년도부터 OFC 참관객 수송용 특별기(?)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보도를 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이 광산업에 대한 시장, 기술동향과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국내의 여건을 감안할 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광산업관련업체는 물론 연관업체 등에서도 업종전환, 추가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산, 학, 연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저변이 광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명실상부한 광산업분야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날이 결코 멀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됨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본다.



우리 진흥회에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태 이후 공항검색이 대폭 강화되고 OFC 전시회 주최측인 OSA의 공식협조요청을 받고 금년 1월부터 전시회 참가가 확정된 회원사 등 국내업체를 중심으로 전시회업무담당실무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준비에 착수하였으며 공항검색 및 통관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시제품의 사전운송, 통관 협조요청 공문 발송, 진흥회와의 통합화물운송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함은 물론 특히 금년도부터 우리 진흥회에서 설치하는 한국관 및 KAPID 홍보관 구성, 운영과 국내 참가업체지원 등을 위해 우리 진흥회, 산업자원부, 광주광역시, 한국무역협회, 전시참가및참관업체 등으로 공동참가단을 구성하여 1진(2002년 3월 19일)과 2진(2002년 3월 20일)으로 나누어 출국하였다.

#### 각국 광산업관련 협회, 학회와의 협력방안협의

전시회가 개최된 첫째날부터 사전미팅약속이 되어있던 각국의 협회, 학회 등과 시차별로 업무협약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미국의 OIDA, 일본의 OITDA, 영국의 SOA, 대만



# 해외전시회참관기

의 PIDA, 싱가포르의 PAS 등 광산업관련 협회등과 상호간 국가차원의 협력방안논의 및 금년 9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02국제광산업전시회 기간 중 우리 한국으로 유치한 광산업 6개국협회 연례회의 참석대상자, 회의주제, 회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각국의 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에 대한 공동후원방안등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다.

미국의 광산업학회이자 OFC를 주최하는 OSA와는 2003년도 애틀란타에서 개최되는 OFC2003 전시회에 한국업체만을 위한 국가관으로 한국관 공동부스설치를 협의하고 참관객 동선을 감안한 최적의 장소에 21개의 부스설치공간을 확보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등 OFC2003 전시회참가 국내업체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미국내 광산업관련분야 학회로써 양대축을 형성하고있는 SPIE에서는 아시아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하는 학술발표대회인 Photonics Asia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우리 진흥회와 공동으로 준비하는 방안과 2003년도에 우리 진흥회가 개최하는 2003국제광산업전시회에 Photonics Asia 2003을 병행 개최하는 방안제의를 있어 이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발족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각국의 광산업관련 협회, 학회 등에서 우리 진흥회에 대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협력방안을 제의해온 점 등을 볼 때 그동안 국제교류협력 및 국내외홍보활동에 전력을 집중해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전시장에서 느낀 최근의 국제광산업동향

OFC를 주최하는 OSA에서는 OFC2002가 규모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진작 매년 OFC전시회를 참관해온 필자의 느낌은 달랐다.

물론 규모면에서는 OFC2001보다 전시회의 경우 전시회참가 업체수가 약 20%정도 증가한 1,200여 업체가 참가하였고 컨퍼런스 논문 제출에 있어서도 약 60%가 증가한 1,100여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전시회장 곳곳에 불참업체로 인한 빈공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참관객수에 있어서도 현저한 감소가 느껴졌다.

이와같은 현상은 최근의 광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여파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광산업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예감과 함께 국제적인 광산업시장동향분석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2003년도 시장동향보고서에서도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었다.

우리 진흥회에서는 이러한 시장 여건하에서 국내업체의 생존전략 및 해외 진출 마케팅전략에 어떤 역할과 지원을 모색해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하는 과제로 부각해야할 것 같다.

아울러 우리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국제적인 시장 및 기술동향의 변화추이, 즉 기존 제조기술의 고도화된 정련, 확장은 물론 가격절감 등 원가절감과 집적화, 관련업계간의 공동기술개발, 부문별 협약, 대량 생산시스템의 도입, 품질의 균질화, 공동마케팅전략추진, 반도체 패키징기술의 도입과 접목 등에 관심을 집중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현지에서의 세미나개최

우리 진흥회에서는 OFC전시회에 참가 또는 참관한 업체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의 광기술동향과 해외시장진출마케팅전략을 재점검 하는 기회를 갖고자 미국 현지의 진흥회 캠프인 HOLIDAY INN BUENA HOTEL에서 3월19일 만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최한 OFC2002 참가/참관업체 초청 만찬 세미나

당초 참석예정자를 약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였으나 거의 100여명에 가까운 광산업관련업체임직원의 참석으로 세미나 행사장을 긴급히 확장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광산업분야전문기업인 NOVERA OPTICS를 경영하는 김병운 박사와 광산업관련 마케팅전문 컨설팅사인 OPEN DREAM을 경영하는 김종국 사장을 초청연사로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만찬과 세미나, 토론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관, KAPID홍보관 구성 운영

우리 진흥회에서는 E홀내 451호 부스에 우리 한

국의 광산업육성 계획, 투자유치, 2002국제광산업전시회 참가업체 유치 등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진흥회, 산업자원부, 광주광역시, 한국무역협회 직원 등을 상주시켜 국내 전시 참가업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부스를 방문한 약 2,865명의 국내외 광산업관계자들에게 우리 한국의 광산업육성정책, 인프라구축상황, 광관련기업의 투자유치, 2002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준비 상황설명과 참가업체유치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약 1주일동안의 여정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비행기내에서 필자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광산업관련시장과 기술동향에 대처해 가야 하는 우리 국내업체를 위한 우리 진흥회의 역할과 향후 중국, 싱가포르 등 광관련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생존을 위한 경쟁에 맞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관련업체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진흥회나 필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광산업분야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몫으로 생각하며 함께 노력해갈 것을 제안해 본다.



▲한국의 광산업 육성계획 홍보 및 2002 국제 광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유치를 위한 진흥회 홍보부스(좌측필자)